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Value of Children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부산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석사 박수빈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 연구원 김희화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 Su-Bin Par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Research Fellow : Hee-Hwa Kim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value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is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value of children to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37 mothers, who had young children.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F*-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value of children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ild's factors (gender and number of children in the family, etc.), the mother's factors (age and education, etc) and the family's factors (household income and cost of bringing up the child). Second, familism is related to emotional value and instrumental value, parenting efficacy is related to emotional value and social value, children's temperament is related to emotional value, and the value of children from mother's reference group is related to emotional value and

Corresponding Author : Hee-Hwa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63 Beon-gil 2, Busandaehag-ro,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2832 Fax: +82-51-513-7976 Email: hwakim@pusan.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instrumental value, social value, and burdensome value. As for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value of children from mother's reference groups is important for changing the value of children of th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주제어 (Keywords) : 자녀가치관 (value of children), 가족주의 가치관 (familism), 양육효능감 (parenting efficacy), 준거집단 자녀가치관 (value of children from mother's reference group)

I. 서론

우리나라는 1983년을 기점으로 저출산 현상이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에 2010년 출산율을 1.6으로 회복하려는 새로마지플랜을 수립하였지만 2010년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22명에 그치고 있고(Statistics Korea, 2010)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시도구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 간 지원의 차이도 크고 한시적 사업이 많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 후 양육지원 정책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반면 기혼여성 당사자의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접근의 유용성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Lee, 2010).

출산율 증가를 위한 경험적 연구로는 출산의 주체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에 관련되는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Cheon, 2005; Kwang, 2007; Lee, 2007; Ma, 2007).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자녀가치관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이고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Chung & Chin, 2008; Kwon & Kim, 2004; Lee, 2007; Ma, 2007; Nauck, 2007). 이는 전통적으로 자녀출산은 결혼 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결과이었지만 점차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변화해가고 있고 특히 둘째아 출산은 개인적 가치와 경험에 의한 선택적 행동이 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율 증가는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모색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녀가치관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손실에 관한 것으로(Kwon & Kim, 2004) 다수의 연구(Bulatao, 1981; Tobin, Clifford, Mustian, & Davis, 1975)에서 자녀출산율과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Hoffman과 Hoffman(1973)등에 의해 출산동기와 출산경향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자녀가치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Yang, 1996) 자녀가치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자녀 가치관에 관심을 둔 초기 연구자인 Arnold 외(1975)는 자녀 가치관의 차이를 초래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도시경험, 부인의 직업경험 및 연령, 결혼 연령, 가정의 수입, 자녀수 등을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는 가족의 크기, 자녀의 수에 따른 자녀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Bae, 2007; Heo, 1988)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치관은 지식과 체험, 느낌과 감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고, 제반 환경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Choi, 2003; Lee, 2007). 이는 자녀 가치관과 관련되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외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징,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경험 및 환경적 요인과 같은 미시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은 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구성되는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머니로서의 역량 및 배우자와의 관계, 나아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움을 시사해 주나 다양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10년 전의 자료로 분석된 Kim, Park, Kwon과 Koo(2005)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들의 결과에서 가족주의 가치관,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아동 양육스트레스 등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자녀가치관 일부 영역들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자녀출산의도 및 출산에 직접적 관련요인으로 자녀가치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가치관과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혀 줄 연구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에 대한 동기 및 기대를 결정하며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가족주의 가치관이 출산행태(Lee, 2010), 자녀가치관(Kim, et al., 2005)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09). 이는 가족주의 가치관은 시대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치관과 관련되는 요인임을 제시하는 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도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관련 요인 연구에서 관심을 뒤야할 요인으로 본다. 양육효능감은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Lee, Park, & Choi, 2010; Moon, 1999) 및 삶의 만족도(Kim, 2011)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온정적 양육을 보이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점을 감안해 보면 실제 첫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긍정적 자녀가치관을 형성하기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자녀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의 증대와 함께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실질적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밀도도 자녀가치관과 밀접히 관련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부관계 친밀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산후 우울도 감소되고(Seo, 2011), 3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감소되며(Muslow,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나아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돌봄 수준도 높아지는 사실(Jang, Jeung, & Lee, 2011)에 근거해 볼 때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높은 친밀감을 느끼는 어머니들은 자녀가치관도 긍정적일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에 관련되는 환경적 요인을 첫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의 특성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준거집단의 특성이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에 밀접히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을 경우 어머니는 자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쉽고, 극단적인 기질의 자녀는 문제행동과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므로(Han, 1996)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키우고 있는 자녀의 외로움, 정서적 불안정, 협동심 부족 등의 특성이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고려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Ma, 2007), 이는 첫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에는 첫 자녀의 기질보완을 위해 후속출산을 의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 첫 자녀의 기질과 자녀가치관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와 잦은 접촉을 하는 이웃, 선후배, 친구, 직장 동료들이 준거집단이 되고 준거집단은 행동 및 신념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규범적 기능과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들을 판단하는 표준 혹은 비교기준으로서의 비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Dodd, 1982) 어머니가 자주 접하는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

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 자신의 자녀가치관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구가 미흡한 자녀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가치관의 차이를 밝히고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가족주의 가치관과 양육효능감, 부부관계 친밀감, 어머니의 환경적 요인인 자녀의 기질,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녀가치관에 기초한 출산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은 심리적 요인(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 양육효능감, 부부관계친밀감) 및 환경적 요인(자녀의 기질,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37명이다.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3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70명이 설문지 조사에 응하였으나 자료 수집 결과 회수된 질문지는 251부이었다. 이들 중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237부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1명이 96명(40.5%), 2명 이상이 141명(59.5%)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08명(45.5%)이고, 여아가 59명(24.8%)이고, 혼성이 70명(29.5%)이었다. 첫 자녀 연령이 1세 미만은 59명(24.9%)이고, 2세에서 3세는 74명(31.2%)이며, 4세에서 5세는 69명(29.1%)이고, 6세 이상은 35명(14.8%)이었다. 결혼지속연수는 2년 미만이 31명(13.1%)이며, 2년에서 4년이 59명(24.9%)이며, 5년에서 7년은 112명(47.3%)이며 8년 이상은 35명(14.8%)이었다. 월평균 소득에서 보면 200만원에서 299만원이 89명(37.6%)으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에서 399만원이 50명(21.1%)이고, 400만원에서 499만원이 51명(21.5%)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지출은 50만원 미만이 119명(50.2%)으로 높았고, 그다음으로 50만원에서 99만원이 75명

(31.6%)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수로는 2명이 129명(54.4%)이며, 3명이 67명(28.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에서 35세에 153명(64.5%)로 가장 많았고 36세에서 40세인 어머니가 48명(20.2%)로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105명(44.3%)으로 가장 높았다. 종교부분에서 어머니는 유교가 153명(64.6%)으로 나타났고, 무교가 84명(35.4%)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에서 직업이 없는 무직이 110명(4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형제수에서 2명이 76명(32.1%), 3명이 73명(30.8%)으로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Bae(2007)의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Bae(2007)의 척도는 정서적 가치관, 도구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부담적 가치관인 4개의 하위영역 구성되어 있다. 그의 연구에서 정서적 자녀가치관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보완하고자 Ma(2007)의 자녀가치관 척도 문항 중 정서적 자녀가치관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체문항은 38문항이었으나 각 영역별 내적합치도 분석결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2문항은 제외시키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총 36문항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하였다. 척도 문항 중 ‘부부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은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 해당되는 자녀가치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도구적, 사회적 가치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부담적 가치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치관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68 ~ .82로 나타났다.

2)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Kim(2009)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73으로 나타났다.

3)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Lee(2004)가 사용한 18문항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를 ‘나

는 아이의 학습이나 놀이를 지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법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4) 부부관계 친밀감

부부관계 친밀감은 국내에 맞게 적합성을 검토한 후 만든 Lee(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문항 중에 ‘우리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와 같은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친밀감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5) 자녀의 기질

자녀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Han(1996)이 사용한 척도의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기질 척도 중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문항 중 영유아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각 3문항을 선별하여 총 9문항으로 기질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법으로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기질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6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6)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은 Lee(2007)의 자녀가치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한 개인의 자녀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내 주변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여긴다’ 식으로 수정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준거집단 자녀가치관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value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child's characteristics

		Emotional -value M (SD)	Instrumental -value M (SD)	Social-value M (SD)	Burdensome -value M (SD)
Number of children in family	One	3.90 (0.49)	2.26 (0.56)	3.09 (0.51)	3.07 (0.67)
	Over two	4.24 (0.45)	2.81 (0.59)	3.26 (0.42)	3.35 (0.43)
	<i>t value</i>	-3.69***	-1.42	-2.21*	-1.86
Child's gender	Male	4.12 b (0.47)	2.82 ab (0.34)	3.13 ab (0.47)	3.98 a (0.68)
	Female	3.99 b (0.52)	2.56 b (0.57)	3.08 b (0.36)	3.38 b (0.68)
	Both	4.56 a (0.11)	3.25 a (0.08)	3.14 a (0.08)	3.57 ab (0.17)
	<i>F value</i>	6.26***	3.88*	4.86**	6.35***
Age of first child	Under one	3.93 (0.45)	2.56 b (0.58)	2.88 (0.42)	3.57 a (0.79)
	Two-three	4.00 (0.43)	2.61 b (0.56)	2.91 (0.32)	3.33 ab (0.44)
	Four-five	4.11 (0.53)	2.87 ab (0.50)	2.91 (0.53)	3.11 b (0.52)
	Over six	4.14 (0.39)	2.88 a (0.47)	3.02 (0.37)	3.05 b (0.70)
	<i>F value</i>	2.40*	5.39***	0.88	7.11***

* $p < .05$ ** $p < .01$, *** $p < .001$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의 각 하위영역 간 평균값 비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각 영역별 총점에 해당 영역의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으로 Scheffé검정($p < .05$)을 하였다. 어머니의 자녀가치관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차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자녀관련 변인, 어머니 관련 변인, 가정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자녀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의 차이
자녀수, 자녀성별, 첫 자녀연령 등의 자녀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각 영역별로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정($p < .05$)을 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에 의하면, 자녀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자녀수에 따라 정서적 자녀가치관($t = -3.69$, $p < .001$), 사회적 자녀가치관($t = 2.21$, $p < .05$)의 차이가 유의 하였다. 1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보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사회적 자녀가치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정서적 자녀가치관($F = 6.26$, $p < .001$), 도구적 자녀가치관($F = 3.38$, $p < .05$), 사회적 자녀가치관($F = 4.86$, $p < .01$), 부담적 자녀가치관($F = 6.35$, $p < .001$)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자녀의 성별이 혼성일 경우 여아일 때보다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도구적 자녀가치관, 사회적 자녀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들만 있는 어머니의 경우 여아를 가진 어머니 보다 부담적 자녀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연령의 경우 정서적 자녀가치관($F = 2.40$, $p < .05$), 도구적 자녀가치관($F = 5.39$, $p < .001$), 부담적 자녀가치관($F = 7.11$, $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관의 하위집단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도구적 자녀가치관과 부담적 자녀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자녀의 연령이 높을 때는 도구적 자녀가치관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 때는 부담적 자녀가치관이 다른 연령의 자녀를 가진 경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치관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교육수준, 종교, 이상적 자녀수, 직업, 형제수 등의 어머니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치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가치관, 도구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부담적 가치관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정($p < .05$)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자녀가치관($F = 3.98$, $p < .05$), 부담적 자녀가치관($F = 17.68$, $p < .001$)에서 유의한 차

Table 2.
Difference in value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mother's characteristics

		Emotional -value M (SD)	Instrumental -value M (SD)	Social- value M (SD)	Burdensome -value M (SD)
Mother's age	Under 25	2.87 (0.35)	2.25 (0.54)	2.35 b (0.32)	2.74 b (0.50)
	25-30	3.96 (0.37)	2.79 (0.56)	3.16 ab (0.15)	3.30 b (0.62)
	31~35	4.23 (0.36)	2.61 (0.38)	3.24 ab (0.23)	3.38 b (0.51)
	36~40	4.12 (0.40)	2.63 (0.42)	3.65 ab (0.45)	3.47 ab (0.24)
	Over 41	4.13 (0.29)	2.78 (0.45)	3.98 a (0.49)	3.68 a (0.26)
	<i>F value</i>	2.43	2.12	3.98*	17.68***
Period of marriage	Under 2 years	3.87 (0.45)	2.33 b (0.55)	2.93 b (0.59)	2.87 b (0.72)
	2~4 years	3.40 (0.50)	2.53 ab (0.58)	3.01 b (0.43)	3.06 b (0.48)
	5~7 years	4.08 (0.47)	2.81 ab (0.48)	3.29 a (0.43)	3.18 ab (0.55)
	Over 8 years	4.32 (0.25)	2.89 a (0.62)	3.11 ab (0.39)	3.54 a (0.78)
	<i>F value</i>	3.05*	6.96***	12.78***	5.03***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3.87 b (0.39)	2.60 (0.47)	3.13 ab (0.36)	3.15 (0.77)
	College	4.10 ab (0.44)	2.69 (0.47)	3.01 b (0.56)	3.14 (0.63)
	Undergraduate	4.05 ab (0.52)	2.67 (0.65)	2.22 b (0.47)	3.13 (0.55)
	Over graduate	4.22 a (0.31)	2.85 (0.46)	3.43 a (0.48)	3.33 (0.40)
	<i>F value</i>	3.52*	0.78	4.94**	0.64
Mother's religion	No	4.04 (0.40)	2.57 (0.52)	3.05 (0.49)	3.20 (0.50)
	Yes	4.32 (0.37)	3.02 (0.52)	3.39 (0.46)	3.52 (0.61)
	<i>t value</i>	1.98	3.87**	3.82**	6.32***
Expected number of children	One	3.64 b (0.58)	2.49 b (0.30)	3.37 a (0.40)	3.47 a (0.87)
	Two	4.09 ab (0.41)	2.77 a (0.59)	3.10 b (0.52)	3.22 ab (0.62)
	Over three	4.11 a (0.51)	2.68 b (0.50)	3.28 b (0.46)	3.00 b (0.46)
	<i>F value</i>	8.69***	4.82**	3.99**	4.53***
Mother's job	Unemployed	4.11 (0.50)	2.69 (0.55)	3.13 b (0.54)	3.23 (0.71)
	Technician, service	3.80 (0.32)	2.59 (0.55)	3.12 b (0.48)	2.93 (0.38)
	Clerical worker	4.32 (0.38)	2.73 (0.58)	3.68 a (0.36)	3.14 (0.60)
	Public officials	3.65 (0.42)	2.02 (0.42)	3.05 b (0.35)	3.02 (0.39)
	Specialist	3.31 (0.35)	2.55 (0.61)	3.31 b (0.42)	3.22 (0.58)
	<i>F value</i>	2.31	1.55	5.89**	2.04
Mother's siblings	None	4.31 ab (0.33)	2.69 (0.55)	3.33 (0.59)	3.28 a (0.81)
	One	3.92 b (0.51)	2.58 (0.61)	3.21 (0.44)	3.21 b (0.64)
	Two	4.07 ab (0.44)	2.65 (0.50)	3.13 (0.45)	3.08 b (0.42)
	Over three	4.98 a (0.32)	2.72 (0.54)	3.06 (0.52)	3.01 ab (0.51)
	<i>F value</i>	3.88**	1.98	1.52	8.23***

* $p < .05$, ** $p < .01$, *** $p < .001$

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 부담적 자녀가치관과 사회적 자녀가치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는 정서적 자녀가치관($F = 3.05, p < .05$), 도구적 자녀가치관($F = 6.96, p < .001$), 사회적 자녀가치관($F = 12.78, p < .001$), 부담적 자녀가치관($F = 5.0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하위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도구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8년 이상의 어머니들이 2년 이하 보다 높았고, 사회적 가치관의 경우 5~7년인 어머니들이 그 이하의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8년 이상

의 어머니들이 4년 이하의 어머니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관($F = 3.52, p < .05$), 사회적 자녀가치관($F = 4.94, p < .01$)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인 경우 다른 학력의 경우보다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사회적 자녀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도구적 자녀가치관($t = 3.87, p < .01$), 사회적 자녀가치관($t = 3.82, p < .01$), 부담적 자녀가치관($t = 6.32,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세 영역의 자녀가치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Differences in value of children according to household's characteristics

		Emotional -value M (SD)	Instrumental -value M (SD)	Social- value M (SD)	Burdensome -value M (SD)
Household income	Under 2000000	4.01 (0.23)	2.97 ab (0.12)	2.50 b (0.63)	3.31 ab (0.61)
	2000000~2990000	4.10 (0.50)	3.02 a (0.46)	2.88 a (0.54)	3.22 b (0.58)
	3000000~3990000	3.96 (0.43)	2.77 b (0.42)	2.44 b (0.50)	3.25 b (0.70)
	4000000~4990000	3.94 (0.55)	2.80 b (0.39)	2.75 ab (0.53)	3.03 b (0.61)
	Over 5000000	4.06 (0.40)	2.78 b (0.22)	2.56 b (0.46)	3.35 a (0.07)
	<i>F value</i>	1.53	4.04**	4.70**	5.07***
Cost of bringing up the child	Under 500000	4.07 b (0.49)	2.65 (0.59)	2.94 (0.51)	3.22 ab (0.64)
	500000~990000	3.93 b (0.49)	2.64 (0.57)	2.91 (0.33)	3.17 b (0.57)
	1000000~1490000	4.16 ab (0.25)	2.96 (0.29)	2.99 (0.25)	3.37 ab (0.58)
	Over 1500000	4.43 a (0.57)	2.75 (0.23)	2.85 (0.15)	4.57 a (0.20)
	<i>F value</i>	3.64**	2.97	2.73	5.50***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관($F = 8.69, p < .001$), 도구적 자녀가치관($F = 4.82, p < .01$), 사회적 자녀가치관($F = 3.99, p < .01$), 부담적 자녀가치관($F = 4.5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이상적인 자녀수를 3명 이상으로 생각한 어머니 경우 정서적 자녀가치관은 높고 부담적 자녀 가치관은 낮으며, 1명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가치관과 부담적 가치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자녀가치관($F = 5.89, p < .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경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자녀가치관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형제수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관($F = 3.88, p < .01$), 부담적 자녀가치관($F = 8.2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본인이 외동인 어머니의 경우 형제를 가진 어머니보다 부담적 자녀가치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3명 이상의 형제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1명의 형제를 가진 어머니보다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familism, parenting efficacy, intimacy of marital relationship, child's temperament, value of children from mother's reference group, and value of children

	Emotional-value	Instrumental-value	Social-value	Burdensome-value
Familism	.31***	.49***	.04	-.09
Parenting efficacy	.20**	-.06	.19**	-.38***
Intimacy of marital relationship	-.01	.08	.02	-.07
Child's temperament	.36***	.11	.07	.18
Value of children from mother's reference group	.54***	.56***	.19*	-.36***

* $p < .05$, ** $p < .01$, *** $p < .001$

3)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치관의 차이

가정의 월평균 소득, 월평균 양육비 등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가치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가치관, 도구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부담적 가치관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정($p < .05$)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도구적 자녀가치관($F = 4.04, p < .01$), 사회적 자녀가치관($F = 4.70, p < .01$), 부담적 자녀가치관($F = 5.07,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부담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이 다른 소득의 가정보다 높게 나타났고, 도구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200만원 대의 가정이 300만원이상의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녀가치관은 200만원대의 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양육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관($F = 3.64, p < .01$), 부담적 자녀가치관($F = 5.50,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월 평균 양육비가 150만원 이상인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정서적 자녀가치관 및 도구적 자녀가치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 양육효능감, 부부관계 친밀감, 자녀의 기질,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 양육효능감, 부부관계 친밀감, 자녀의 기질,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각 하위영역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에 의하면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정서적 자녀가치관($r = .31, p < .001$)과 도구적 자녀가치관($r = .49,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 및 도구적 자녀가치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정서적 자녀가치관($r = .20, p < .01$) 및 사회적 자녀가치관($r = .19,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담적 자녀가치관($r = -.38,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기질은 정서적 자녀가치관($r = .36,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은 정서적 자녀가치관($r = .54, p < .001$), 도구적 자녀가치관($r = .56, p < .001$), 사회적 자녀가치관($r = .19,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담적 자녀가치관($r = -.36,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부관계 친밀감은 자녀가치관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37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녀가치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 양육효능감, 부부관계 친밀감, 자녀의 기질,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녀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녀성별, 결혼지속년수, 이상적 자녀수에 따라 정서적, 도구적, 사회적, 부담적 자녀가치관등 모든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도구적, 사회적, 부담적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첫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도구적, 부담적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모의 형제수, 양육비에 따라 정서적, 부담적 자녀가치

관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모의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정서적 사회적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유의하고, 모연령과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사회적, 부담적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자녀수에 따라서는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사회적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그리고 모직업에 따라서는 사회적 자녀가치관의 차이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선행연구(Arnold et al., 1975; Bae, 2007; Heo, 1988)에서 보고된 자녀수, 가족크기,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연령, 가정의 수입, 자녀수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상적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종교, 형제 수 등의 어머니 요인 및 자녀의 성별구성, 양육비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자녀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해 주므로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교육이나 출산중대 지원책 마련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자녀가치관 하위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 중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 수 및 이상적 자녀수가 많은 경우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어머니들은 많은 자녀를 가짐으로서 가계계승 및 사회적 지위획득 등의 도구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높게 인식한 것과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많은 자녀가 경제력, 가계계승과 같은 도구적 자녀가치관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면 현대사회에서 많은 자녀가 어머니 개인의 행복추구, 정서적 안정감, 결혼생활의 축복 등의 정서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지속 년수가 낮은 어머니보다 높은 어머니의 정서적, 도구적, 사회적 자녀가치관 및 부담적 자녀가치관이 높게 나타난 점은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점차 자녀를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서적 즐거움과 사회적 역할획득 및 가계계승의 원천으로 느끼면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켜 나가는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11개국의 청소년, 기혼모, 조모를 대상으로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나이든 집단의 자녀가치관이 더 높게 나타난 점(Nauck & Klaus, 2007)과 유사한 것으로 자녀가치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 문화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연령이 많은 어머니의 도구적 자녀가치관이 높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가치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노후지원자로서 가치롭게 여기게되고 자신의 연령증가를 의식하면서 자녀를 사회적 관계속에서 부모로서의 지위획득을 해주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재미있는 현상을 제시

해 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점차 자녀출산이 선택적 사항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녀의 연령 및 어머니 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가 노후 지원자 및 사회적 지위 획득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식하는 전통사회의 자녀가치관 쪽으로 어머니들의 자녀가치관이 변화한다(Kim, Park, & Kwon, 2005)는 것을 제시해 준다. 넷째, 월평균 양육비가 많은 어머니들이 정서적 자녀가치관 및 부담적 자녀가치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양육비를 많이 쓰는 집단이 자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만 긍정적 정서의 원천으로 지각하고 양육비가 적은 가정이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고 부담적 자녀가치관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월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으나 자녀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낮은 경제적 상황이 저출산의 직접적 주요 원인이 아니더라도 해석 한(Lee, 2007) 것을 본 연구결과는 지지해 준다. 따라서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정책이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녀성별이 남아인 경우 정서적 자녀가치관은 낮고 부담적 자녀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근거해 보면 결혼 초기에 첫 출산으로 여아를 낳아 양육하는 어머니보다 남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제시해 주므로 남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긍정적 자녀가치관 형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정서적 자녀가치관 및 도구적 자녀가치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효능감은 정서적, 사회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이 있고 부담적 가치관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은 정서적 가치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은 모든 자녀가치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부관계 친밀감은 자녀가치관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관이 지식과 체험, 느낌과 감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고, 제반 환경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Choi, 2003; Lee, 2007)는 주장처럼 자녀가치관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특히 관련 요인 중에서도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이 자녀가치관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오늘

날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의 다양한 자녀가치관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어머니들의 자녀가치관과 비교하여 유사한 방향으로 형성되기 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젊은 어머니 세대의 가치관이 과거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지만 자녀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녀가치관 변화를 통한 출산 증대를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긍정적 자녀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안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양육인프라구축 및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좋지만 긍정적 자녀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기혼여성 나아가 미혼 여성의 자녀가치관 증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및 가치관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해 준다. 반면에 부부관계 친밀감은 자녀가치관 어떤 하위영역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치관이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부부관계 친밀감보다는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 주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부부관계 증대와 같은 가족내적 개입보다는 주변인들의 의식변화와 같은 가족외적 개입으로 이뤄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가족주의 가치관 및 양육효능감도 자녀가치관 일부 영역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자녀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같은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현재 키우고 있는 자녀의 외로움, 정서적 불안정, 협동심 부족 등의 특성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고려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a, 2007)는 견해와 관련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첫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들은 다른 형제가 기존 자녀의 미흡한 점이나 외로움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등의 정서적 지원자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기면서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치관의 각 하위영역은 자녀수, 자녀성별, 첫 자녀 연령,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업, 형제수, 이상적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가정의 월평균 소득, 월평균 양육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밝혀냈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이 출산여부를 결정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자녀가치관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영유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가치관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 양육효능감, 자녀의 기질,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 등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될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어머니의 다양한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특히 어머니가 관계 맺고 있는 준거집단의 자녀가치관 변화가 중요함을 밝힌 점이다. 이는 자녀양육 나아가 자녀출산 증대를 위해서는 가임 적령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녀가치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출산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목된 자녀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초기 연구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중 일부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만 살펴본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관련 요인을 선정하고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자녀가치관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낮은 출산률이 자녀를 한 자녀이상을 낳지 않은 가정의 증대에 기인하다는 협의의 관점을 가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가치관을 살펴보았으나 기혼 전 여성이나 신혼 여성과 같은 잠재적 출산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녀가치관과 관련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출산 의도 및 출산률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단위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질척도 및 부당적 자녀가치관의 신뢰도가 .64, .68로 다소 낮은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 두 척도를 사용할 경우 문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et al. (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Vol. 1. Honolulu: East West Population Institute.
- Bae, K-M. (2007). Parents' perception of the value of child in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Bulatao, R. A. (1981). Values and disvalues of children in successive childbearing decision. *Demography*, 18, 2-26.
- Cheon, H-J. (2005). The characteristics of couples by their desires for a second chi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25-33.
- Choi, W-S. (2003). Conceptions of life and mechanism of value consciousness transforma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An educational aspect of 'theory of globa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H-E., & Chin, M-Y. (2008).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3(1), 147-164.
- Dodd, C. H. (1982).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Humanities.
- Han, S-Y. (1996).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pooriness-of-fit of tempera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eo, E-J. (1988). The value of children and child-rear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levels of parental educations and the sex of par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S-W., Chung, H-J., & Lee, J-Y. (2011). The influence of family-of -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intimacy on parent-child relation.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5(4), 93-111.
- Kim, G-H. (2011). The effects of employed an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life-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5), 49-57.
- Kim, J-R., & Kim, K-S. (2009). The influence of family functioning and familism on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in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3(4), 133-149.
- Kim, U., Park, Y-S., & Kwon, Y-E.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 and Social Issues*, 11(1), 109-142.
- Kim, U., Park, Y-S., Kwon, Y-E.,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4(3), 338-354.
- Kwang, Y-J. (2007). Family-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birth decision: Focus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4), 639-653.
- Kwon, Y-E., & Kim, U-C. (2004). Values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1), 211-226.
- Lee, I-H., Park, J-E., & Choi, S-Y.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9(4), 81-91.
- Lee, J-W. (2007). The study on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H. (1998). Marriage type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R. (2010).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married women upon value on children and upon childbirth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5(1), 99-121.
- Lee, S-M. (2004).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relations maternal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and the mothers' aspiration of their children's attai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Ma, M-J. (200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oon, H-J. (1999). The influence of working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n the child-rear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97-107.
- Musl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6.
- Nauck, B. (2007). Value of children and the framing of fertility: Results from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urvey in 10 socie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615-629.
- Nauck, B., & Klaus, D. (2007). The varying value of children: Empirical results from eleven societies in Asia, Africa and Europe. *Current Sociology*, 55(4), 487-503.
- Seo, M-J.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self-percep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6), 107-121.
- Statistics Korea (2010). Total Fertility Rates. <http://www.kostat.go.kr>.
- Tobin, P., Clifford, W. B., Mustian, R. D., & Davis, A. C. (1975).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behavior in a triracial, rural count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6, 46-55.
- Yang, M-S. (1996).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2), 167-181.

접 수 일 : 2012년 4월 1일
 심사시작일 : 2012년 4월 4일
 게재확정일 : 2012년 7월 1일